

『漢韓大辭典』의 構件과 자형 정비

정 형 도*

Ⅰ 국문초록 Ⅰ

본고는 『통합디지털 漢韓大辭典』의 웹 서비스 사업의 일환인 웹 폰트 정비·개발과 관련해, 기존 인쇄용 서체를 웹 폰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자형상의 오류나 미비점을 검토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1차적으로 『漢韓大辭典』 표제 한자 전체를 일일이 검토한 이후, 2차적으로 IRG(국제한자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한 <구건분석표>를 참조하여 1차 과정에서 누락된 구건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224개의 구건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구건별로 글꼴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康熙字典』을 비롯한 전통 韻書와 字書, 현재 통용되고 있는 韓·中·日 三國의 주요 사전 및 한국의 여러 기간 사전을 두루 참조함으로써 傳統性和 普遍性的의 양대 축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중 전통성과 보편성이 일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글꼴 결정도 비교적 쉽다. 하지만 양자가 불일치하거나, 혹은 전통성이나 보편성이라 부를 만한 대표자형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구건 결정의 양상을, 1) 전통성과 보편성이 일치하는 경우, 2) 전통성과 보편성이 불일치하는 경우, 3) 보편성 對 여러 글꼴의 대립, 4) 시대 구분 없이 둘 이상 글꼴의 대립, 5) 여러 글꼴의 난립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글꼴 확정 과정에서는 자원의 중시, 부수체계의 일관성 확립, 유사 구건과의 형평성 고려, 현대인의 필사습관, 필획의 정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좁게는 추후 웹 기반에서 운용되어질 『통합디지털 漢韓大辭典』의 자형표준화를 통해 광범위한 사용자들에게 한자 학습과 검사상의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넓게는 국가 차원의 標準 漢字 제정 논의에 하나의 시안이 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한국의 표준 한자폰트가 제정된다면 현재 한문 교과서를 비롯한 한자 학습교재, 각종 서적과 신문, 출판물, 컴퓨터 폰트 등에 존재하는 혼란스러운 서체 난립 현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漢韓大辭典』, 한자 폰트, 웹 폰트, 構件, 유니코드, 표준화, 『康熙字典』

Ⅰ 목 차 Ⅰ

- | | |
|--------------------------|------------------------|
| I. 머리말 | Ⅲ. 『漢韓大辭典』 정비 대상 構件 목록 |
| Ⅱ. 『漢韓大辭典』 構件 선정의 기준과 유형 | Ⅳ. 맺음말 |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원 / echo110088@hanmail.net

I. 머리말

본고는 『통합디지털 漢韓大辭典』의 웹 서비스 사업의 일환인 웹 폰트 정비·개발과 관련해, 기존 인쇄용 서체를 웹 폰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자형상의 오류나 미비점을 검토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체제와 형식의 일관성은 통일성을 중시하는 辭典의 특성상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한자 사전의 경우는 특별히 字形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이는 사전의 체제 내부적 측면에서 그러할 뿐 아니라 사전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실용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동일 構件¹⁾이 각 글자에 따라 획수가 달라지는 경우,²⁾ 서로 다른 각각의 사전에 존재하는 획수 차이는 어쩔 수 없더라도 최소한 동일 사전 내에서의 구건의 통일을 통한 檢字의 효율성, 정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表音文字를 다루는 여타 二重語 사전과 달리 한자는 방대한 숫자의 表意文字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표제 자형을 통일시키는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5만 여자에 이르는 글자를 구건별로 일관되게 글꼴 및 획수를 일치시키는 작업은, 우선 2개 이상의 글꼴이 존재하는 部首나 構件을 추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를 대상으로 하나의 글꼴을 선택·확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래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자형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긴 하나 방법상의 논의에 국한된다든지, 구건을 다루더라도 부분적인 범주에 그친다거나 하는 한계가 있다. 비교적 전면적인 연구로는 Extension B 영역을 대상으로 한 이재훈(2001)의 <국제 문자 코드계의 한자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자형 선정 기준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나 설명이 없어 축적된 연구방법론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漢韓大辭典』 표제 한자 전체를 일일이 검토한 이후, 2차적으로 IRG(Ideographic Rapporteur Group : 국제한자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한 <구건분석표>를 참조하여 1차 과정에서 누락된 구건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224개의 구건³⁾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구건별로 글꼴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현대 동아시아 여러나라의 한자 자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康熙字典』을 비롯한 전통 韻書와 字書, 현재 통용되고 있는 韓·中·日 三國의 주요 사전 및 한국의 여러 기간 사전을 두루 참조함으로써 傳統性과 普遍性의 양대 축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좁게는 추후 웹 기반에서 운용되어질 『통합디지털 漢韓大辭典』의 자형표준화를 통해 광범위한 사용자들에게 한자 학습과 검자상의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넓게는 국가 차원의 標準 漢字 제정 논

1) 構件이란 現代漢字學의 한 분야인 構形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한자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일컫는 말이다. 蘇培成(2002: 108, 121)은 한자의 구성요소를 筆劃, 部件(혹은 字根, 字元, 字素), 整字 세 단계로 분류하였는데, 部件이란 필획보다는 크고 정자보다는 작은 개념이다. 1990년대 들어 구형학 이론을 최초로 정립한 王寧은 이를 構件이라 하였는데(林秋鈺(2004: 323)에서 재인용), 본고에서는 構形學 자체를 논한 글은 아니지만 논의의 편의상 構件이란 용어를 빌려 쓴다.

2) 예를 들면, ‘+’와 ‘++’, ‘冫’와 ‘宀’ 같은 것을 말한다.

3) 224개 구건은 5만여 한자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구건은 아니다. 『漢韓大辭典』 자형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구건만을 모아 수정·보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지, 한자를 구성하는 모든 구건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 가령 大, 口, 目, 金 등과 같은 구건은 수정 대상으로 삼을 만한 대응 글꼴이 존재치 않기 때문에 본고의 구건목록에서 제외된 것이다.

의에 하나의 시안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의 표준 한자폰트가 제정된다면 현재 한문 교과서를 비롯한 한자 학습교재, 각종 서적과 신문, 출판물, 컴퓨터 폰트 등에 존재하는 혼란스러운 서체 난립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漢韓大辭典』 構件 선정의 기준과 유형

1. 構件 선정의 기준

(1) 전통성

한자는 漢字文化圈이라는 광대한 지역에서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서습관만큼이나 많은 이체자형을 가지고 있다. 현존 韻書나 字書에 수록되어 있는 이체자는 어떻게 보면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이체자 중 어느 것 하나 과거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서 한 번이라도 쓰이지 않았던 글자는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모든 이체자는 전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傳統性이라 함은 그중 권위를 갖고 가장 광범위하게 널리 쓰인 자형을 일컫는다.⁴⁾ 자형의 권위는 아무래도 字書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심에는 『康熙字典』이 있다.

『康熙字典』은 清代 황제의 칙명으로 만들어져, 이후 한·중·일 三國의 문자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字書이다. 『字彙』·『正字通』 등 전대 字書를 계승하되 그중 가장 전범이 되는 자형을 엄선하여 수록함으로써 청대 이후 한자 자형의 규범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康熙字典』은 청대 이후뿐 아니라 청대 이전을 아울러 가장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자형을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형 표준화를 논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康熙字典』을 근간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閔丙俊(1985: 99)은 “필자의 표준자체 선정의 원칙……이체자는 『康熙字典』에서의 正字를 우선으로 했다.”라고 했고, 南廣祐(1997: 30)는 “韓·中·日 三國에서 역사적으로 略字(簡字) 사용 예가 없는 것은 康熙字典體를 표준자체로 하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이재훈(1999: 73)은 “표준화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1)중국의 『康熙字典』, 한국의 『新字典』을 비롯한 자전류를 참고한다.”라고 했고, 李應百(2001: 200)은 “한자 문제를 논의할 때 역시 기본을 康熙字典體에 두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교육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2000)에서도 자형표기 원칙을 “『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을 고려한다”라고 밝혔으며, 『漢韓大辭典』 역시 자형을 비롯해 부수체계, 글자배열, 필획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康熙字典』 체제를 준수하고 있다.

4) 본고에서 말하는 ‘傳統性’이란 ‘字源’과 다르다. 역대 운서나 자서에서 많이 쓰였다 해서 반드시 고문자학적 측면에서 字源에 부합하는 글자는 아니며, 둘은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전통성’이란 ‘과거의 보편성’이라 할 수 있으며, 거꾸로 ‘보편성’이란 ‘미래 어느 시점에서의 전통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 구건 선정의 유형’ 조항에서 다룰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통성의 측면에서 『康熙字典』을 주요 근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玉篇』, 『廣韻』, 『集韻』, 『字彙』, 『正字通』, 『全韻玉篇』, 『新字典』, 『字典釋要』 등 다양한 운서와 자서를 참고하였다.

(2) 보편성

자형의 전통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현재의 보편성이다. 아무리 전통 자형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대인의 문자습관과 감각에 비추어 크게 생소하다면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양자가 그리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성을 완전히 벗어난 보편성은 있을 수 없으며 현재의 글자란 크건 작건 전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현대 중국의 簡化字가 유일한 예외가 될 수 있겠으나 그 역시 대부분은 전통 이체자에서 선별적으로 취한 글자들이다. 실제 많은 경우 보편적 자형은 전통 자형과 일치한다. 다만, 현재의 통용 자형이 전통성을 크게 벗어났을 때는 그 이유를 살펴 수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韓·中·日 주요 사전의 자형을 폭넓게 참고하여 그중 가장 널리 쓰이는 자형을 보편성의 근거로 삼았다. 주요 사전으로는 중국의 『漢語大字典』과 『漢語大詞典』, 일본의 『大漢和辭典』(이하 『대한화』)과 『學研 漢和大字典』(이하 『학연』), 대만의 『中文大辭典』(이하 『중문』), 한국의 『漢字辭典(民衆書林)』(이하 『민중』)과 『大漢韓辭典(教學社)』(이하 『교학사』) 등이 있다.

2. 構件 선정의 유형

전통성이 통시적 측면에서 자형의 역사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보편성은 공시적 측면에서 자형의 통용성·사회성을 중시한 관점이다. 양자는 구건마다, 글자마다, 그때그때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어느 일방이 늘 우세하거나 늘 배제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양자가 일치할 때는 구건 결정이 비교적 쉽지만, 양자가 불일치할 때는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가령 字源을 검토한다든지, 부수체계의 일관성을 확립한다든지, 유사한 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든지, 현대인의 필사습관을 반영한다든지, 필획의 정확성을 기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 양자가 일치할 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구건 선정의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言, 讠, 龜 세 글자의 자서, 운서 분포상황을 통해 특정 구건이 어떻게 ‘전통적 자형’, 혹은 ‘보편적 자형’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아래 표에서 『玉篇』, 『廣韻』, 『集韻』, 『字彙』, 『正字通』, 『全韻玉篇』, 『新字典』은 역대 중국과 한국의 韻書, 字書로서 전통 자형의 자료가 되고, 『대한화』, 『중문』, 『학연』, 『한어대사전』, 『한어대사전』, 『민중』, 『교학사』는 현대 한·중·일 삼국의 주요 통용 사전으로 보편적 자형의 자료가 된다. 제일 좌측의 ‘글꼴’은 해당 구건에 존재하는 상이한 여러 글꼴을 말하는데, 龜자의 경우는 이체자형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 2가지 대표 글꼴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선별 글자는 상용자 위주로 하여 주로 공통영역(BMP, Ext.A)에서 취하였는데, 대체적인 분포상황을 보여주기에 의도이므로 많은 글자를 예시로 들지는 않았다. 예로 든 글자수는 적으나 전체적인 경향성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구건 결정의 기준을 살피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잘 쓰이지 않는 글자도 포함시키기 위해 言자에서는 詭, 謫, 諛, 諛자를 골랐고, 讎자에서는 讎자를 골랐다. 龜자는 공통영역 글자가 많지 않아 공통영역 글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1〉

글꼴	옥편	광운	집운	자취	정자통	강희자전	전운옥편	신자전
①言	言詩 詭	言詩 詭	言詩 詭	言詩 詭	言詩 詭	言詩 詭		言詩 詭
②言	言詩 諛						言詩 諛	
글꼴	대한화	중문	학연	한어대사전	한어대사전	민중	교학사	
①言	言詩 詭	言詩 詭	言詩 諛			言詩 詭	言詩 詭	
②言				言詩 詭	言詩 諛			

『玉篇』에는 두 가지 글꼴이 혼재하고, 『全韻玉篇』에는 ②가 쓰였다. 하지만 『康熙字典』을 비롯, 대부분의 운서, 자서를 보면 ①이 전통 자형의 주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사전을 보면 중국에서만 ②를 채택하였고 다른 국가에서는 ①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보편적 자형은 ①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①을 『漢韓大辭典』의 구건으로 선정하였다.

〈표 2〉

글꼴	옥편	광운	집운	자취	정자통	강희자전	전운옥편	신자전
①讎				迎近 返讎		迎近 返讎	迎近 返	迎近 返
②讎								
③讎	迎近 返讎	迎近 返讎	迎近 返讎		迎近 返讎			

글꼴	대한화	중문	학연	한어대사전	한어대사전	민중	교학사
① 迓	迎近 返迓	迎近 返迓	迓	迓		迎近 返迓	迎近 返迓
② 迓			近返 迎	迎近 返	迎近 返迓		
③ 迓							

전통 운서, 자서에서 ①과 ③이 대립되고 있는데, 주요 자서인 『康熙字典』의 자형을 근거로 ①을 전통 자형으로 간주한다. 『玉篇』, 『廣韻』, 『集韻』의 자형이 필사체여서 迓자를 정확히 ①과 같이 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현대 자형은 한국과 대만에서 ①을 쓰고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 ②를 위주로 하되 ①을 겸용하고 있다. 관점의 차이가 있긴 하겠으나 본고에서는 ①을 보편적 자형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①을 『漢韓大辭典』의 구건으로 결정하였다.

〈표 3〉

글꼴	옥편	광운	집운	자취	정자통	강희사전	전운옥편	신자전
①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②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기타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글꼴	대한화	중문	학연	한어대사전	한어대사전	민중	교학사	
①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② 龜				龜 龜 龜 龜	龜 龜		龜	
기타								

우선 ‘기타’에 해당하는 이체자형은 근소 자형이므로 제외한다. 『字彙』, 『正字通』에서 ②, 『康熙字典』, 『全韻玉篇』, 『新字典』에서 ①이 수록되어 있어 대립 양상을 보이지만, 『康熙字典』을 근거로 전통 자형을 ①로 판별한다. 현대 자전을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①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보편성 역시 ①로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①을 『漢韓大辭典』의 구건으로 결정하였다.

(1) 전통성과 보편성의 일치

전통적 자형과 보편적 자형이 일치할 때 본고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위에서 예로 든 言, 讎, 龜 세 글자가 여기에 속하므로 더 이상의 예는 들지 않는다.

전통성과 보편성이 일치하면 자원과도 부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字源과 어긋나더라도 전통성과 보편성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 “兪(출)”을 구건으로 하는 殺과 剝, “冂(모)”를 구건으로 하는 最와 曼이 그것이다.

“兪”은 차조를 본뜬 글자로 고자형이 “𠂔(갑골문)→兪(소전)”인데, 殺의 소전이 “𠂔”, 剝의 소전이 “𠂔”임을 볼 때 두 글자 모두 兪를 구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廣韻』, 『集韻』을 비롯 『康熙字典』, 『全韻玉篇』, 『新字典』, 『字典釋要』에 모두 “朮” 모양으로 되어 있고, 『대한화』, 『중문』, 『학연』, 『교학사』, 『민중』에도 “朮” 모양으로 되어 있다. 朮은 나무를 본뜬 글자로 고자형이 “朮(갑골문)→朮(금문)→朮(소전)”이므로 兪과는 무관한 글자이다.

또한 “冂”은 머리쓰개를 본뜬 글자로 소전 자형이 “冂”인데, 最의 소전이 “𠂔”, 曼의 소전이 “𠂔”임을 볼 때 두 글자 역시 冂를 구건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集韻』, 『康熙字典』, 『全韻玉篇』, 『新字典』, 『字典釋要』를 비롯 『대한화』, 『중문』, 『학연』, 『한어대사전』, 『한어대사전』, 『교학사』, 『민중』에 모두 曰로 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康熙字典』 이래 부수체계 역시 모두 曰부에 귀속시키고 있다. 曰은 입에서 입김이 나오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고자형이 “𠂔(갑골문)→𠂔(금문)→𠂔(소전)”이므로 冂와는 엄연히 다른 글자이다. 본고에서는 글자의 원형보다는 전통성과 보편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들 자형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전통성과 보편성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 부수체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부수자를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경우이다.

가령 匚(방)과 匚(혜), 攴(치)와 攴(쇠)가 있다. 전통 운자서인 『玉篇』, 『廣韻』, 『集韻』, 『正字通』, 『康熙字典』, 『新字典』, 『字典釋要』에서는 匚를 구건으로 하는 글자와 匚를 구건으로 하는 글자는 모두 匚(방)으로, 攴를 구건으로 하는 글자와 攴를 구건으로 하는 글자는 모두 攴(치)로 통일되어 있다. 단지 『字彙』에서만 匚(혜)로 통일되어 있고, 『全韻玉篇』에서는 攴와 攴가 일부 구분되어 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匚(방)과 攴(치)가 전통 자형임을 판단할 수 있다.

현대 자전을 보면, 『대한화』, 『중문』에서는 攴와 攴가 비교적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匚과 匚는 경계를 넘나들고 있고, 이외 『학연』, 『교학사』, 『민중』에서는 약간의 출입은 있으나 대체로 匚(방)과 攴(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어대사전』과 『한어대사전』에서는 근본적으로 ㄷ(혜)부와 ㅈ(쇠)부를 없애고, 모든 글자를 ㅈ(방)부와 ㅉ(치)부에 귀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ㅈ(방)과 ㅉ(치)가 보편적 자형이라 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방(ㅈ)과 치(ㅉ)는 전통성과 보편성을 공히 획득한 자형이라 할 수 있겠다.

ㄷ, ㅈ, ㅉ, ㅊ가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미세한 필획의 차이여서 편의상 일괄 통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이것들이 모두 부수자임을 감안, 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부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𡇗, 𡇘, 復, 夏, 愛, 憂, 慶 등 ㅉ(쇠) 계열의 글자는 모두 ㅉ(쇠)로, 匹, 區, 匱, 匿, 醫 등 ㄷ(혜) 계열의 글자는 모두 ㄷ(혜)로 통일하였다.

2) 다른 類似 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華자가 있다. 고자형은 “𡇗(금문)→𡇘(소전)”으로, 華자의 ㅈ 아래 ㅈ자 획이 분리된 형태이다. 실제 『한어대사전』, 『한어대사전』, 『학연』을 제외한 『集韻』, 『字彙』, 『正字通』, 『康熙字典』, 『全韻玉篇』, 『新字典』, 『字典釋要』, 『대한화』, 『중문』, 『교학사』,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두 양쪽 획이 분리된 모양인 華자 형태이며 획수로는 ㅈ부 8획에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垂, 畢, 賁, 異과 같이, ㅈ자 형태가 병렬된 구건의 경우 모두 획을 이어 주었으므로 華 역시 획이 연결된 모양을 취하였다. ㅈ가 4획에 해당하므로 총 11획이 된다.

(2) 전통성과 보편성의 불일치

‘전통성과 보편성의 일치’를 제외하면 여러 다양한 양상이 있다. 현존하는 각종 서체의 혼란은 이러한 원인에서 기인한 바 크다. 이는 사전편찬자의 주관에 따라 구건이 결정되는 부분으로서, 자원의 중시, 부수체계의 일관성 확립, 유사 구건과의 형평성 고려, 현대인의 필사습관, 필획의 정확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여 선택의 근거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성과 보편성이라 부를 만한 대표자형이 각각 존재하면서 양자가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전통성과 보편성의 불일치’라 부른다.

예를 들면 忝자가 있다. 忝자는 『玉篇』, 『廣韻』, 『集韻』, 『字彙』, 『正字通』, 『康熙字典』, 『全韻玉篇』, 『字典釋要』까지 忝, 『新字典』, 『대한화』, 『중문』, 『학연』, 『교학사』, 『민중』까지 忝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한어대사전』과 『한어대사전』에서 忝 자형인 것을 제외한다면 전통 자형은 忝, 보편적 자형은 忝으로 대별된다. 발음요소가 ‘ㄷ’인 점을 고려하면 자원상 忝이 타당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현대인의 필사습관을 고려, 후자의 자형을 선택하였다.

(3) 보편성 對 여러 글꼴

다음으로, 보편적 자형이라 부를 만한 대표자형은 존재하나 전통 자형이라 부를 만한 대표자형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역대로 난립해 오던 여러 글꼴과 현대의 보편적 자형과의 대립 양상으로, 이 경우 주로 보편성을 따르게 된다. 그런데 보편적 자형이 결국은 『康熙字典』의 자형과 같아지는 예가 많은데, 이는 전통

시대 여러 서체가 난립해 오다 『康熙字典』을 기점으로 정자가 확립된 후 후대 보편화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兪자가 있다. 兪자는 『玉篇』에 兪, 『廣韻』에 兪, 『集韻』에 兪, 『字彙』, 『全韻玉篇』, 『字典釋要』에 兪, 『正字通』에 兪, 『康熙字典』, 『新字典』에 兪자로 되어 있는 등 전통 운자서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통 자형이라 부를 만한 대표자형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현대 자전을 보면, 『한어대사전』과 『한어대사전』은 『玉篇』과 같지만, 『대한화』, 『중문』, 『학연』, 『교학사』, 『민중』은 모두 『康熙字典』과 같다. 그러므로 현대의 보편적 자형은 역시 『康熙字典』의 자형인 兪자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보편성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康熙字典』의 자형을 취하되, 다만 月이 글자의 하변에 오면 冂로 변한다는 원칙 하에, 결과적으로 『字彙』, 『全韻玉篇』, 『字典釋要』와 같은 글꼴인 兪를 구건으로 채택하였다.

같은 예로, 戶자가 있다. 戶자는 『玉篇』에 戶, 『廣韻』, 『字彙』에 戶, 『集韻』, 『正字通』에 戶, 『康熙字典』, 『全韻玉篇』, 『新字典』, 『字典釋要』에 戶로 되어 있는 등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현대 자전을 보면, 『한어대사전』과 『한어대사전』이 『玉篇』과 같은 것을 제외하면 『대한화』, 『중문』, 『학연』, 『교학사』, 『민중』이 모두 『康熙字典』과 같은 자형이다. 본고에서는 보편성을 따라 戶자를 구건으로 취하였다.

(4) 시대 구분 없이 둘 이상 글꼴의 대립

전통성과 보편성의 대립이 아닌, 시대를 넘나들며 둘 이상의 글꼴이 대립되는 예가 있다.

가령 瓜자와 𠂔자가 대표적이다. 瓜자는 『康熙字典』, 『全韻玉篇』, 『新字典』, 『字典釋要』, 『교학사』, 『민중』은 瓜, 『字彙』, 『正字通』, 『대한화』, 『중문』, 『한어대사전』, 『한어대사전』은 𠂔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5획의 부수임을 감안, 필획의 정확성을 위해 후자의 자형으로 결정하였다.

𠂔자는 『玉篇』, 『廣韻』, 『集韻』, 『字彙』, 『全韻玉篇』, 『新字典』, 『字典釋要』, 『한어대사전』, 『한어대사전』, 『학연』에 𠂔, 『正字通』, 『康熙字典』, 『대한화』, 『중문』, 『교학사』, 『민중』에 𠂔로 되어 있어 두 가지 자형으로 대별된다. 본고에서는 부수자가 𠂔이므로 부수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𠂔를 구건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𠂔자뿐 아니라 𠂔부에 속한 모든 글자에 적용된다.

(5) 여러 글꼴의 난립

고금을 통틀어 여러 운자서에서 매우 다양한 글꼴이 혼재하는 경우로, 丰자가 전형적인 예이다. 丰자가 구건으로 들어가는 주요 글자인 契, 慧, 邦, 蚌, 𧇧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통일된 모양으로 쓰인 글자가 없다.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까지 다양한 글꼴이 각 글자에 쓰이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합치면 대략 15개에 이른다. 이들을 하나의 모양으로 통일하기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로 오랜 시간 쓰여 왔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위치에 따라 丰, 丰, 丰, 丰, 丰 등 5가지 글꼴로 결정하였다.

이외, 구건의 일관성을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글자도 있다. 하나의 구건이 일관되게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별 글자가 매우 강한 통용성을 획득하였을 때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가령 “宀” 구건의 글자 중 受와 愛와 舜, “麥” 구건의 글자 중 麩, 麴, 麵, “勹” 구건의 글자 중 的, “袁” 구건의 글자 중 遠 등이다.

Ⅲ. 『漢韓大辭典』 構件 목록

본고에서 추출한 총 224개 구건은 아래 <표 4>와 같다. 각 구건별로 ‘수정 대상 구건’과 ‘선정 구건’을 표기하였고, 아울러 관계되는 유형끼리 묶어 구건을 범주화 하였다. 획수, 일부 별개글자, 위치변화, 점과 획, 점 방향, 획 방향, 획 연결, 획 모양, 始作點, 突出, 기울기, 갈고리, 曲頭, 屈曲, 起筆強勢, 길이 등 총 16개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관련 유형이 둘 이상이면 모두 표기해 주되, 유형별 분류시에는 보다 중요한 유형으로 귀속시켰다.

구건에 따라 세부구건으로 다시 나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위치변화’에 속한 유형의 경우, 위치에 따라 글꼴이 변하기 때문에 세부 항목이 필요한 경우이다. 가령 月은 위치에 따라 月, 夕, 朙로 되고, 丰은 丰, 丰, 丰, 丰, 丰, 丰, 示는 示과 示로, 宀은 宀과 宀로, 食은 食과 食로 글꼴이 변하게 된다. 丰은 좌측에 올 때만도 글꼴이 2개이므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좌1’에 해당하는 모양인 丰과 丰을 특별히 명시하였다. 둘째는 이와 상반되게, 유사 구건을 하나로 묶어서 표시하기 위해 대항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가령 “卽既鄉”, “曼最”, “致條脩”, “宀立辛……宀亨”, “曾酋……失失”, “肖貨術尙”, “宀采……爵爲”를 일일이 개별 구건으로 나열하는 번거로움을 피해 각각 兪, 曰, 女, 一, 八, 小, 宀로 귀납하였다.

동일 유형 안에서의 구건 배열은 기본적으로 필획순이며, 형태적 유사성이 높은 구건은 병렬하였다.

<표 4>

No.	선정 구건	수정 대상 구건	유형
1	乙	乙	1. 획수
2	++	++	1. 획수
3	++	++	1. 획수, 돌출
4	女	致	女
		條	
		脩	

No.	선정 구건	수정 대상 구건	유형
5	隆	隆	1. 획수
6	去	充	去
		充	
7	育	育育育	1. 획수, 위치변화, 점과 획
8	牙	牙牙	1. 획수

No.	선정 구건	수정 대상 구건	유형	
9	之	之	1. 획수	
10	及	及	1. 획수	
11	瓜	瓜瓜	1. 획수	
12	母	每毒	母	1. 획수
13	反	反	1. 획수	
14	巨	巨	1. 획수	
15	兕	兕	1. 획수	
16	曳	曳	1. 획수	
17	刹	刹	1. 획수	
18	者	者	1. 획수	
19	殺	殺	1. 획수	
20	羊	光 差 着 羞	羊	1. 획수
21	白	皀 叟	白	1. 획수
22	皂	卽 旣 鄉	皂	1. 획수, 획 방향, 시작점
23	成	成	1. 획수	
24	呂	呂	1. 획수	
25	臣	臣	1. 획수	
26	莽	莽莽	1. 획수	
27	垂	垂	1. 획수	
28	畢	畢	1. 획수	
29	異	異	1. 획수	
30	華	華華	1. 획수	
31	卑	卑	1. 획수	

No.	선정 구건	수정 대상 구건	유형	
32	笛	笛	1. 획수	
33	尙	尙	1. 획수	
34	骨	骨骨	1. 획수, 위치변화	
35	菰	菰菰	1. 획수, 기울기	
36	蚤	蚤	1. 획수	
37	盥	盥	1. 획수	
38	晉	晉晉	1. 획수	
39	敖	敖敖	1. 획수, 일부 별개글자	
40	賁	賁	1. 획수	
41	黃	黃黃	1. 획수, 획 연결	
42	黑	黑	1. 획수	
43	強	強	1. 획수	
44	粵	粵	1. 획수	
45	奧	奧	1. 획수	
46	虛	虛	1. 획수	
47	歲	歲	1. 획수	
48	寔	寔	1. 획수	
49	稽	稽	1. 획수	
50	興	興 興 興	興	1. 획수
51	黎	黎	1. 획수	
52	辭	辭	1. 획수	
53	衛	衛	1. 획수	
54	纂	纂	1. 획수	
55	七	七 叱	七七	2. 일부 별개글자
56	叱(와, 화)	叱	2. 일부 별개글자	
57	人	処 臥	卜	2. 일부 별개글자

No.	선정 구건	수정 대상 구건	유형
58	入	全	人
		內	
59	儿	宀	儿
		秃	
		虎	
		亮	
60	巳	巷	巳己
		夔	
61	曰	曼	月
		最	
62	壬	任	王壬
		至	
63	壬	託	王壬
		呈	
		廷	
		望	
64	天	聖	天
		聽	
65	天	忝	天
		蚕	
66	天	吞	天
		奏	
66	巩	巩	2. 일부 별개글자
67	夂	夂	2. 일부 별개글자, 굴곡
68	夂	夂	2. 일부 별개글자, 굴곡
69	夂	夂	2. 일부 별개글자, 굴곡
70	宀	宀	2. 일부 별개글자, 기울기
71	別	別	2. 일부 별개글자

No.	선정 구건	수정 대상 구건	유형
72	麻	麻麻麻	2. 일부 별개글자, 점과 획
73	俞	俞俞俞	2. 일부 별개글자, 위치변화
74	貪	貪貪	2. 일부 별개글자, 점과 획
75	乾	乾	2. 일부 별개글자
76	隆	隆	2. 일부 별개글자
77	毀	毀	2. 일부 별개글자
78	宰	宰	2. 일부 별개글자
79	廩	廩	2. 일부 별개글자, 점과 획
80	藟	藟	2. 일부 별개글자
81	嵩	嵩	2. 일부 별개글자
82	月	月 (좌·우·중)	月夕
		夕 (상)	夕
		月 (하)	月月
83	畜	畜畜	3. 위치변화, 획 모양
84	祭	祭祭	3. 위치변화, 획수
85	丰	丰(하)	丰
		丰(좌1) 丰(좌2)	丰丰
		丰(상·우)	丰
		丰(중)	丰丰丰
		丰(중)	丰丰丰

No.	선정 구건	수정 대상 구건	유형
86	示	示(좌)	示
		示(상·하·우)	示
87	穴	宀(상)	宀宀宀
		穴(좌·우·하)	穴穴
88	羽	羽(상·중앙)	羽羽
		羽(좌·우·하)	羽
89	宀	宀宀宀 宀宀	3. 위치변화, 곡두
90	豕	豕(좌)	豕
		豕(우·상·하)	豕
91	食	食(좌)	食食食
		食(우·하)	食食
92	上	上	上
		立	
		辛	
		音	
		妾	
		章	
		董	
		音	
		亲	
		示	
		方	
		衣	
		文	
		高	
		齊	
玄			
亡			
			4. 점과 획

No.	선정 구건	수정 대상 구건	유형
		亢	
		京	
		亥	
		卒	
		襄	
		亦	
		帝	
		六	
		享	
		亭	
		交	
		之	
		离	
		商	
		稟	
雍			
夜			
卜			
亨			
93	宀	宀	4. 점과 획
94	广	广	4. 점과 획
95	疒	疒	4. 점과 획
96	勺	勺	4. 점과 획
97	的	的	4. 점과 획
98	勻	勻	4. 점과 획
99	主	主	4. 점과 획
100	戶	戶戶	4. 점과 획, 시작점
101	肩	肩肩肩	4. 점과 획, 위치변화
102	次	次次	4. 점과 획
103	今	今	4. 점과 획
104	令	令令	4. 점과 획
105	氏	氏	4. 점과 획

No.	선정 구건	수정 대상 구건	유형	
106	永	永永	4. 점과 획, 돌출	
107	卯	卯	4. 점과 획	
108	糸	糸	4. 점과 획	
109	舟	舟	4. 점과 획	
110	言	言	4. 점과 획	
111	良	良	4. 점과 획, 획수	
112	朋	朋	4. 점과 획	
113	殷	殷	4. 점과 획	
114	鼠	鼠鼠	4. 점과 획, 돌출	
115	龍	龍龍	4. 점과 획, 위치변화	
116	邊	邊	4. 점과 획, 굴곡	
117	刃	刃刃刃 刃刃	5. 점 방향	
118	丸	丸丸丸	5. 점 방향	
119	火	火	5. 점 방향	
120	冬	冬	5. 점 방향	
121	於	於	5. 점 방향	
122	𠂇	𠂇	氷	5. 점 방향
		皐		
		皐		
		裊		
123	𠂇	雨𠂇	5. 점 방향	
124	佳	佳	5. 점 방향	
125	弱	弱	5. 점 방향	
126	脊	脊脊脊	5. 점 방향, 위치변화	
127	眾	眾眾	5. 점 방향	
128	率	率率	5. 점 방향, 점과 획	

No.	선정 구건	수정 대상 구건	유형	
129	八	矣	/ \ \ /	6. 획 방향, 곡두
		兌		
		𠂇		
		益		
		曾		
130	八	亼	ㄨ	6. 획 방향
		平		
		半		
		矣		
		卷		
131	小	肖	ㄨ	6. 획 방향
		貨		
		爾		
132	𠂇	𠂇	𠂇	6. 획 방향
		采		
		孚		
		妥		
		憇		
		爭		
		守		
		奚		
		爰		
		𠂇		
		𠂇		
		𠂇		
		𠂇		
133	舜	舜	6. 획 방향	
134	禾	禾	6. 획 방향	
135	肖	肖肖	6. 획 방향, 위치변화	
136	璽	璽	6. 획 방향	

No.	선정 구건	수정 대상 구건	유형
137	鬲	鬲	6. 획 방향
138	兼	兼兼	6. 획 방향
139	莘	莘	6. 획 방향
140	賣	賣	6. 획 방향
141	朮	朮	7. 획 연결
142	宄	宄	7. 획 연결, 점과 획
143	友	友	7. 획 연결
144	西	西	7. 획 연결
145	西	西西西	7. 획 연결, 같고리
146	辰	辰	7. 획 연결
147	囟	囟	7. 획 연결
148	弁	弁	7. 획 연결
149	直	直直	7. 획 연결, 획 모양
150	查	查	7. 획 연결
151	眞	眞眞眞	7. 획 연결, 획 모양
152	苒	苒	7. 획 연결
153	善	善	7. 획 연결
154	寔	寔	7. 획 연결
155	微	微微微	7. 획 연결
156	亶	亶亶	7. 획 연결, 점과 획
157	牽	牽	7. 획 연결
158	龜	龜龜龜	7. 획 연결
159	縣	縣	7. 획 연결, 같고리
160	虧	虧	7. 획 연결
161	內	內	8. 획 모양

No.	선정 구건	수정 대상 구건	유형
162	召	召	8. 획 모양
163	冊	冊	8. 획 모양
164	色	色色	8. 획 모양
165	产	产	8. 획 모양
166	吳	吳吳	8. 획 모양
167	青	青青	8. 획 모양, 위치변화
168	亟	亟	8. 획 모양
169	函	函	8. 획 모양
170	衰	衰	8. 획 모양
171	賴	賴賴	8. 획 모양
172	匕	匕 匕 匕 匕	9. 시작점
173	屯	屯	9. 시작점
174	反	反	9. 시작점
175	舌	舌	9. 시작점
176	耒	耒	9. 시작점
177	虫	虫	9. 시작점
178	舍	舍	9. 시작점
179	雷	雷	9. 시작점
180	風	風	9. 시작점
181	乚	乚乚乚	10. 돌출
182	女(𠂇)	女	10. 돌출
183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10. 돌출

No.	선정 구건	수정 대상 구건	유형
184	中 舛 韋	中	
185	丑	丑	10. 돌출
186	无	无	10. 돌출
187	片	片	10. 돌출
188	冉	冉	10. 돌출
189	夫 奉 秦 春 泰	夫	10. 돌출
190	角	角	10. 돌출
191	告	告	10. 돌출
192	那	那	10. 돌출
193	周	周	10. 돌출
194	旣	旣	10. 돌출
195	勇	勇	10. 돌출
196	炭	炭	10. 돌출
197	庶	庶	10. 돌출
198	爽	爽	10. 돌출
199	虜	虜	10. 돌출
200	睂	睂	10. 돌출
201	勗	勗	10. 돌출
202	粲	粲	10. 돌출
203	鼻	鼻	10. 돌출
204	寧	寧	10. 돌출
205	鼎	鼎	10. 돌출
206	凡	凡	11. 기울기
207	毛	毛	11. 기울기

No.	선정 구건	수정 대상 구건	유형
208	丹	丹	11. 기울기
209	正(좌)	正	11. 기울기
210	羊(좌)	羊	11. 기울기
211	辛(좌)	辛	11. 기울기, 점과 획
212	耳	耳	11. 기울기
213	非	非	11. 기울기
214	蚩	蚩	11. 기울기
215	丿 冂 也 召	丨	12. 갈고리
216	乚 几 元 奄 袁	乚	12. 갈고리
217	代 冂 袁 冨	代	12. 갈고리
218	八 公 分 兗 衰	八	13. 곡두
219	儿 冂 甚 奂	八	14. 굴곡
220	乚 乚 丈 文 父 爻	乚	15. 기필강세
221	尫	尫	16. 길이
222	麥	麥	16. 길이
223	梟	梟	16. 길이
224	鼠	鼠	16. 길이, 점 방향

IV. 맺음말

한자의 기초 구성요소는 『강희자전』 부수자 214자를 포함해 대략 500여 개에 달하며⁵⁾ 이들이 상호 조합되어 5만여 개에 이르는 한자를 구성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글자라도 점이나 획의 각도, 방향, 기울기, 간격 등 필획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여러 글꼴이 공존하는데, 이는 통일성을 증시하는 사전의 특성상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무엇보다 한자학습자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구건의 일관성 유지는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漢韓大辭典』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구건을 추출하고, 여러 글꼴이 대립할 경우 하나의 글꼴을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224개의 구건을 추출하여 유형화하고, 구건별로 확정 글꼴을 제시하였다.

글꼴 확정의 주요 기준은 전통성과 보편성인데,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글꼴 결정도 비교적 쉽다. 하지만 양자가 불일치하거나, 혹은 전통성이나 보편성이라 부를 만한 대표자형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본고에서는 구건 결정의 양상을, 1)전통성과 보편성이 일치하는 경우, 2)전통성과 보편성이 불일치하는 경우, 3)보편성 對 여러 글꼴의 대립, 4)시대 구분 없이 둘 이상 글꼴의 대립, 5)여러 글꼴의 난립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글꼴 확정 과정에서는 자원의 중시, 부수체계의 일관성 확립, 유사 구건과의 형평성 고려, 현대인의 필사습관, 필획의 정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본고의 논의가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안은 아니겠으나, 좁게는 『漢韓大辭典』의 일관된 자형 정비의 토대가 되고, 넓게는 국내 표준 한자폰트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의 통일 시안이 될 수도 있으리라 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한자 자형 표준화에 대한 보다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全韻玉篇』

池錫永 編(1909), 『字典釋要』, 亞細亞文化社, 1976.

朝鮮光文會 編(1915), 『新字典』, 1978.

諸橋轍次 編, 『大漢和辭典(全13卷)』, 大修館書店, 1961.

林尹·高明 主編, 『中文大辭典(全10卷)』, 中華學術院, 1980.

藤堂明保 編, 『學研漢和大字典』, 學習研究社, 1982.

5) 蘇培成(2001: 130)에 의하면, 1997년 중국에서 발표한 『漢字部件規範』에는 560개의 기초부건이 20,902개의 한자를 구성하고 있다.

-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全12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 徐中舒 主編, 『漢語大字典(全3卷)』, 四川辭書出版社·湖北辭書出版社, 1995.
-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8.
- 『大漢韓辭典』, 教學社, 1998.
- 『漢韓大辭典(全15卷)』,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 南廣祐, 「漢字文化圈內 共通常用漢字 字形과 字數統一의 意義와 統一案」, 제4회 國際漢字會議, 1997.
- 閔丙俊, 「漢字의 標準字體 選定을 위한 一考」, 『語文研究』 13:1, 1985.
- 朴秋鉉, 「字素의 概念과 分類」, 『南冥學研究』 18, 2004.
- 蘇培成, 이규갑 옮김, 『現代漢字學』, 학고방, 2007.
- 李應百, 「漢字文化圈內의 共通常用漢字 검토」, 『국제한자토론회18년』, 2008.
- 이재훈, 「국제표준문자코드 제안 한자 자형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 『새국어생활』 9:1, 1999.
- 이재훈, 「국제 문자 코드계의 한자 표준화에 대한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2001.
- IRG <구건분석표> (<http://appsrv.cse.cuhk.edu,hk/~irg/>)

* 이 논문은 2012년 6월 28일에 투고되어,
2012년 7월 2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8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On Aligning Component Parts and Chinese Character Fonts
in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Jung, Hyungdo*

This article, regarding modification and development of web-font which is a part of web service project for “*The Unified Digital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is prepared to check out errors and defects of fonts occurring in the process in which print-fonts are transformed into web-fonts and to modify and compensate them.

In first stage, every entry character in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is examined one by one. Then in second stage, referring “Component Parts Analysis Chart” arranged by IRG (Ideographic Rapporteur Group), component parts omitted in the first stage are reflected. For the result, the final 224 component parts are extracted. In the next stage in which a font for each extracted component part is determined, traditional dictionaries for phonetics and for characters such as *Kangxizidian*, currently circulated major dictiona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as well as some key dictionaries in Korea are consulted, so that the double axes of traditionality and universality are taken as the fundamental for synthetic judgement.

Among them, the cases in which traditionality and universality are indifferent are most, and in such cases font determinations are relatively easy. However, in the cases that the two are unidentical or that neither traditionally nor universally representative font exists, various approaches are required. This paper sorts component parts determinations into five cases: 1) accordance between traditionality and universality, 2) discordance between traditionality and universality, 3) conflict between universality and other fonts, 4) conflict between two fonts or more regardless of temporal distinction, and 5) jumble of plural fonts. In font determination process, various criteria such as origin of a character, coherence of radical system, equity with similar component parts, contemporary people’s hand-writing habits, and stroke accuracy were applied to resolve problems.

Such discussions not only from narrow perspective may allow various users of *The Unified*

* Researcher, Academy of Asi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Digital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to have convenience for learning and searching Chinese characters by font standardization, but also from wide perspective may provide a proposal to establish a standardized Chinese character fonts in national level. If Korea's standardized Chinese character fonts are established, it could help to resolve confusing jumble of Chinese character fonts in various chinese character learning books including sino-korean textbooks, various printed materials including books and newspapers, and computer fonts.

[Key Words]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Chinese character font, web-font, component part, unicode, standardization, *Kangxizidian*